

일. 요단강을 건넌 (수 3):

❖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함

- 40 년 동안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진영이 떠날 때를 알려주었고, 법궤가 그들을 새로운 목적지로 인도했습니다(민 9:17; 10:33).
-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. 그들은 싯딤을 떠나 요단 강에 도착해서 진을 친지 사흘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(수 3:1-3).
- 법궤를 따라 간다는 의미는
 - (1) 십계명 돌판: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고
 - (2)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: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
 - (3) 아론의 싹난 지팡이: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을 존중함
-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(수 3:5).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과, 죄를 버리고,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.

❖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

- 하나님은 “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”(시 72:18)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단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인정하고 (시 86:10),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(시 77:11),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을 이야기합니다 (시 96:3).
-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렵거나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(렘 32:17; 눅 1:37).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(시 107:8).
-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즉,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(속 8:6-8).

이. 기억하고 잊어버림 (수 4):

❖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들

- 성경에서 말하는 표징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: 놀라운 예언 (왕상 13:3); 상징 (창. 9:13); 경고의 표시 (출. 12:13); 중요한 계약 (겔. 20:20); 기념비 (창. 28:18).
- 여호수아가 요단 강에서 가져온 열두개의 바위들로 만든 표징은 맨 마지막의 예, 즉 기념비를 뜻합니다.
- 이 열두개의 바위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넘어 어떤 근본적인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(수 4:6-7)?
- 역사를 모르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했습니다.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지식들을 전해줄 책임이 있었습니다(신 4:9). 우리도 이러한 지식위에 각자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.

❖ 잊어버림의 위험

- 여호수아는 길가에 열두바위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(수 4:23):
 - (1) 하나님께서 우리, 즉 여호수아, 갈렙,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살아 있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 마른 길을 만드셨고
 - (2) 하나님께서 너희, 즉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을 정복할 새 세대를 위하여 요단강을 갈라 마른 길을 만드셨다
-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가 저지른 같은 실수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역사들을 잊어버렸고,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(삿 3:7-88).
-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어떻게 돌보셨는지,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마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!

삼.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들

- ❖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서로 연결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(시 66:6; 시 114).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.
- ❖ 실제로 엘리야는 요단 강을 기적으로 건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(왕하 2:1, 7, 8, 11).
- ❖ 하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때 그 사건은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이었고, 성령님의 임재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(왕하 2:14-15).
- ❖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도 엘리사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. 곧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(막 1:9-11; 요 1:29; 3:16).).